

주간기도정보

2024. 8. 2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무종교인 10명 중 4명 ‘개신교 이탈’...교회 빨간불

목데연 ‘한국인의 종교 인식’ 주제로 설문결과 발표



무종교인 10명 중 절반가량은 과거 종교가 있었으며, 이중 ‘개신교인’이었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신교 신자의 이탈률은 가톨릭과 불교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나 한국교회의 대응이 요청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지용근)는 지난달 30일 ‘한국인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리포트 넘버즈 250호를 발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 10명 중 4명은 과거 종교를 믿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거 종교가 ‘개신교’라고 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톨릭(33%)과 불교(17%)가 뒤를 이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묻은 결과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란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25%),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실망해서’(15%), ‘종교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어서’(11%), ‘종교가 과학과 맞지 않아서’(5%), ‘시간이 없어서’(5%) 순으로 답변했다.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무종교인은 19%에 그쳐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이들이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불교’가 42%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은 33%였다. 이 가운데 ‘개신교’는 3개 종교 중 가장 낮은 22%로 제일 낮았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먼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꼴인 73%는 ‘종교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4%, ‘모르겠다’는 4%였다.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을 묻자 ‘다양한 봉사 활동의 주체’(47%)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44%),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32%), ‘노약자 및 장애인 돕기’(29%), ‘사회적 가치 수호’(23%), ‘사회적 갈등 중재’(23%), ‘빈민 구제’(22%) 순이었다.

목데연은 6가지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국민 대부분(81%)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우리 사회갈등 해결’ 등에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 지도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목데연 김진양 부대표는 “한국사회 탈종교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며 “교회는 타종교에 비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개인주의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전파할지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이사야 52: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사도행전 17:30-31)

하나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믿음이 생기지 않아 돌아선 수많은 영혼들을 보며 한국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잃어감에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 된 교회에 세상의 방법과 제도로 굳어진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사 복음과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인 십자가 복음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기도에 생명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악한 세상 풍조 속에서 죄와 사망에 매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가짜 신분증 만들기도 어려워져...중국 내 탈북민들 ‘절망’

북한 당국 탈북민 가족 등 한국 관련자들 묶어 ‘111호 대상’으로 특별 통제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한국행이 어려워지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보증인을 세울 것까지 요구받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13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신분증으로 일부 탈북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돈은 기본이고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본인 서약과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만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돈이 있어도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가 힘들어져 가짜 신분증으로 한국에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던 탈북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에 가다 문제가 되면 보증인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을 서주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자유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보다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신분증을 만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어려워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랴오닝성 선양에 사는 또 다른 탈북민도 “평생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힘들다”면서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할 수 없게 돼 마음이 무너진다”며 착잡한 심경을 터놓았다.

소식통은 “지금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고 싶은 마음이 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많다”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많은 탈북민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지금 얼굴 인식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신분증에 지문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어떤 탈북민들은 강제복송 위험, 죽음을 각오하고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겠다고 나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이나 한국과 전화 연계를 가진 경력 있는 주민, 한국 드라마 시청 경력이 있는 주민들을 '111호 대상'으로 특별 분류해 감시,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탈북민 가족을 요시찰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긴 했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관련자들을 한데 묶어 '111호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111호 대상'에 속하면 간부 문건(서류), 당원 문건, 주민 등록 문건 등 각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건에 별도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나 친척 중 '111호 대상'이 있으면 노동당 입당, 간부 사업(등용) 등 모든 게 끝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1호 대상'에 속하면 보위부와 안전부 감시 통제 대상 1순위"라며 "특이한 동향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전화 도청 등 이들의 모든 것이 철저히 감시된다"고 언급했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편 145: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누가복음 4:18-19)

하나님, 중국 내 삼엄한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숨통이 조여오는 때에 위조 신분증으로 한국에 가려는 시도마저 좌절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편한 날이 없는 이들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곤경에 처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한 북한에 111호 대상으로 분류돼 특별 감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사 하늘에 소망을 두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북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며 전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가려면 1명 초대해’...‘단톡방 불러 개인정보 요구’

경찰청, 교육당국에 ‘학폭 신종유형 발생경보’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최근 학교 친구 B군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 초대됐다. B군은 A양을 포함한 20명의 친구에게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증번호’를 요구했다.

A양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고민했지만, B군은 ‘단톡을 나가려면 다른 친구를 초대하고 나가야 한다’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겁을 먹은 A양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오픈 채팅방에 모두 올렸다. A양은 정보가 어디로 쓰일지 몰라 아직도 밤잠을 설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 놓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방식의 신종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제9호)를 지난달 발령했고, 교육부는 경보 내용을 전달받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인증번호는 본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인증번호로 가해 학생들은 명의자 계정을 해킹하거나,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무단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업자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근마켓 등 중고 물품 거래에서 사기 거래를 하기도 한다. 가령 구매자에게 접근해 선입금해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식의 사기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입했기 때문에 구매자는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 당국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인증번호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친구나 선배 등이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학교폭력 상담센터(117)로 즉시 연락해야 한다며, 학교에 가지 않는 여름 방학 때 사이버 폭력이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등 사이버 폭력도 늘고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AI)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영상물에 특정 이미지를 삽입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기존엔 얼굴만 영상에 합성됐다면, 이제는 표정과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딥페이크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지인이 정말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법적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딥페이크 영상이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달했다”며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는데, 딥페이크나 단톡방 괴롭힘 등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요한계시록 18:4-5)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하나님,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친구 관계가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져 학교폭력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괴롭히고 협박하여 고통하는 다음세대의 신음을 들어 주십시오. 청소년 관련 범죄와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로 죄의 근원을 막을 수 없는 일 앞에 죄인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이 모두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청소년들이 반응하며 나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책임지는 부모세대가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양육된 다음세대가 세상과 정욕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